



# Contents

신건우 Shin Gunwoo

이동혁 Lee Donghyuk

최지원 Choi Jiwon

코스타스 Kostas  
파파코스타스 Papakostas

# DEEP LAYER

아트스페이스호화는 신건우, 이동혁, 최지원, 코스타스가 참여하는 기획전 《DEEP LAYER》를 개최하며 파란색을 작품의 주요 컬러로 사용한 회화와 조각들을 한 데 모은다. 전시의 제목 ' DEEP LAYER ' 는 바다의 심해층을 뜻한다. 블루와 블랙이 혼재하는 지구 최후의 프런티어 심해. 짙은 푸른빛의 장막으로 끝없이 에워싸인 심해는 굳건하게 영토화된 육지의 삶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여 현실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주체는 경계 없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타자와의 우연한 접촉을 통해 자아와 세계를 확장한다.

전시 《DEEP LAYER》는 미지의 영역인 짙푸른 심해처럼 신비롭고 다층적으로 읽히는 파랑의 이미지들과 서사, 그리고 이들의 교집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작업의 초석으로 삼아, 이를 각자만의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신건우는 종교적 모티브를 녹인 인물상과 좀먹은 듯한 형상 조각에 울트라 마린 컬러의 섬유질 혹은 안료를 곱게 분사 채색하여 존재와 부재의 공존을 나타내며, 이동혁은 기독교 문화에서 사용되는 상징과 버려진 공간 및 오브제가 결합된 스산한 풍경을 통해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천착한다. 이들은 공고히 다져진 인류의 오랜 이야기에 의심의 촉을 던지며 이를 조각과 회화의 언어로 재구축한다. 한편,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두 작가는 삶에 관한 상반된 비가시적 영역을 각기 다른 붓질로 표현한다. 최지원은 매끈한 도자기 인형과 한 때 생이 깃들었던 곤충의 사체, 생물 모조품 등을 그려모아 청아한 푸른빛의 초현실적 구상화로 세련하며, 코스타스 파파코스타스는 검푸른 색의 일 획의 필치로 폭발하는 현존재의 에너지를 표출한다. 이들은 각각 살아있는 것의 무상함과 생동함을 담아내 생의 양가적 면모를 길어낸다.

이렇듯 본 전시의 작가들은 각기 다른 미적 형식으로 파랑(BLUE)을 유람하며 식(蝕), 믿음, 죽음, 힘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불확실의 세계를 기꺼이 헤엄친다. 그것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가는 일률적이고 수직적인 움직임보다는 좌우로 이동하는 횡적인 움직임, 혹은 목적없이 떠도는 배회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와 가타리는 저서 『천개의 고원』에서 이러한 유목적 존재방식을 강조하며, 그것이 가능한 장소 혹은 모델로 바다를 지목한다. 바다는 어떠한 경계도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전시의 작품들은 깊고 푸른 색조 외에도 '부재의 존재'라는 광대한 테마 속을 떠돈다는 점에서 그 태도와 실천이 바다의 속성과 닮아 있다. 전시 《DEEP LAYER》는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고 이따금씩 겹치는 항해자 4인의 자유롭고 푸른 움직임을 주목하며, 새로운 지대로의 탈주로 당신을 초대하고자 한다.

신건우(Seoul, B.1978)는 종교나 신화 등 태고의 이야기들을 비틀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떠한 것’을 조각 매체로 표현한다. 그것은 비가시적이지만 분명 있는 것으로서, 언어화 하기에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러한 추상적 실존을 주로 종교성과 일상성의 접목, 혹은 완전한 전체와 불완전한 부분의 공존을 통해 구체화한다. 전자의 경우, 불상의 자세와 종교화의 광배 등을 평범한 인물상에 적용하여 절대자의 존재가 저 먼 곳이 아닌 지금 이 곳에 있음을 나타낸다. 후자는 蝕(좀 먹을 식)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한 조각으로 전개된다. 일부분 좀 먹은 듯 제작한 고려 석탑 모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물질 이면에 위치한 네거티브의 존재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다. 더불어, 고운 섬유질로 분체 코팅한 차분한 블루 컬러의 표면과 침식 구간의 광택감이 주는 대조는 강한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견고한 미적 완성도가 돋보이는 신건우의 푸른 조각은 세상을 구성하는 원료가 존재, 그리고 부재임을 피력한다.

# Shin Gunwoo

b.1978

# 신건우

2007~2009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슬레이드 예술학교, 대학원  
 2004~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1997~20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부

## 개인전

- 2022 SIK:蝕, 해치아트프로젝트, 싱가포르
- 2021 蝕(Sik), 갤러리2, 서울
- 2019 Archipelago, 마이아트뮤지엄, 서울
- 2018 SURFACE, 갤러리2, 서울
- 2017 Gunwoo Shin Solo show, 하나 PB Centre, 서울  
Retrograde,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 2015 All saints, 갤러리 구, 서울
- 2014 Watch the butterfly falling,  
Shin Gallery, 뉴욕, 미국
- 2013 BLITZ, 갤러리2, 서울
- 2011 Kaleidoscope, 갤러리 현대(윈도우), 서울
- 2006 사이에서, 관훈 갤러리, 서울

## 단체전

- 2022 (SMS) Stop making Sense, 해치아트프로젝트, 싱가포르
- 2021 MATT:ER, 갤러리퍼플, 남양주  
404040, 김세중미술관, 서울  
오늘이 내일에게-사유의 시간, 인사아트센터, 서울  
Intercambio De Miradas, 주스페인한국문화원, 마드리드, 스페인
- 2020 제41회 서울조각회, 김세중미술관, 서울  
2020+전, 관훈갤러리, 서울  
그 외 다수

## 레지던시

- 2013 Gallery purple studio, 남양주
- 2009 Land securities studio, 런던, 영국
- 2008 Merzbarn residency, 레이크 디스트릭트, 영국

## 수상

- 2021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 대상 수상, 남도문화재단
- 2009 Land securities award Grand Prize,  
Land Securities Group PLC

##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서울시립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 / 호반문화재단



[Dawned](#)

pigment on resin, neon, wood, 150×50×50(h)cm, 2021, ed.2/3



Sik (蝕)-Blue pagoda (Dongnyang-chi)  
chromium plated resin, fiber, 80×50×130(h)cm, 2022



Incredulite  
bronze, 30×25×85(h)cm, 2022, ed.1/3

이동혁(Seoul, b.1985)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서늘한 풍경을 그린다. 습기를 머금은 것 같은 부슬부슬한 터치로 인간 형상을 왜곡하거나, 물감을 바르고 짙는 과정을 반복하여 무언가가 퇴색해 버린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작가의 스산한 화면은 대부분 기독교 문화의 상징과 버려진 공간 및 오브제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기독교라는 인류의 거대한 종파에서 그 소재를 빌려오지만, 종교적 화두보다는 광의적 의미에서의 '믿음에 대한 의심'을 천착한다. 그의 주제 의식은 주로 두 가지 방법론으로 이미지화 된다. 하나는 확고한 믿음의 이미지를 부수면서 끌고 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모호한 텍스트를 단단한 이미지로 구축하는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역치의 화법(畫法)은 실제와 멀 수록 더욱 구체화되는 믿음의 성질과 닮아 있다. 미스터리한 푸른 빛의 풍경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당위에 물음을 던지며 허물어지고, 새로이 세워진다.

# Lee Donghyuk

b.1985

# 이동혁

201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수료  
201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 2022 A Nuance Remained on the Window, 에이라운지, 서울
- 2020 공회전,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침묵이 바위를 깰 때, 에이라운지, 서울
- 2018 식어가는 빛, 스페이스 나인, 서울

## 단체전

- 2023 Divine Weight, 구조, 서울
- 2021 You Never Saw It, 기체, 서울  
BGA SHOWROOM, Background Artworks, 서울  
ICON, 학교재, 서울  
디딜 곳 없는 사다리, 드로잉룸, 서울
- 2015 컬러 온 캔버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 2012 선(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공장미술제, 대안공간 루프, 서울

## 수상/선정

- 2020 예술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 2018 최초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갈대같은 지팡이  
oil on canvas, 130×97 cm, 2017



문제  
oil on canvas, 21.5×21.5cm, 2020



시계만 가고 시간은 멈춘 곳에서  
oil on canvas, 162×227.3cm, 2019



백뿔을 메운 8  
oil on canvas, 112×112cm, 2021

최지원 (Seoul, b.1996)은 도자기 인형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적 구상회화로 관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곱게 세련한 인형의 피부는 그것의 매끄러운 감촉과 더불어 텅 빈 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허한 소리마저 연상케 한다. 그의 회화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 오브제는 그 표면과 성질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외로운 시대의 초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작에 이르러서 작가는 삶 안과 밖의 광대한 이야기에 접속을 시도한다. 인형과 함께 수집된 곤충의 사체와 나무로 된 동물 조각품들은 한때 생이 깃들었던 생물이거나 생물을 모사한 사물이다. 모두 얼핏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이 꺼진 것들로,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다. 작가는 이러한 경계적 대상들을 통해 생의 반짝이는 찰나와 무상함을 유비한다. 최지원은 회문(回文)처럼 돌고도는 생과 사의 이야기를 섬세한 붓질로 붙잡아 아름다우면서 기묘한 화폭으로 완성한다.

# Choi Jiwon

b.1996

# 최지원

202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2019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 2023 채집된 방, 디스위켄드룸, 서울
- 2020 Cold Flame, 디스위켄드룸, 서울

## 단체전

- 2023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대전창작센터, 대전
- 2022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22 사유의 베일, 일우스페이스, 서울
- 2021 매니폴드: 사용법,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21 0인칭의 자리, 디스위켄드룸, 서울
- 2021 씨킷 서울, 무신사 테라스, 서울
- 2021 연기와 연기, 상업화랑, 서울
- 2020 Fair Play!, 디스위켄드룸, 서울
- 2019 의미있는 중얼거림, 복합문화공간에무, 서울
- 2019 제4회 COSO 청년작가 기획전, 서울
- 2019 이화아트파빌리온 개관기념전 Switch On, 이화아트파빌리온, 서울

## 작품 소장

- 2020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수상 및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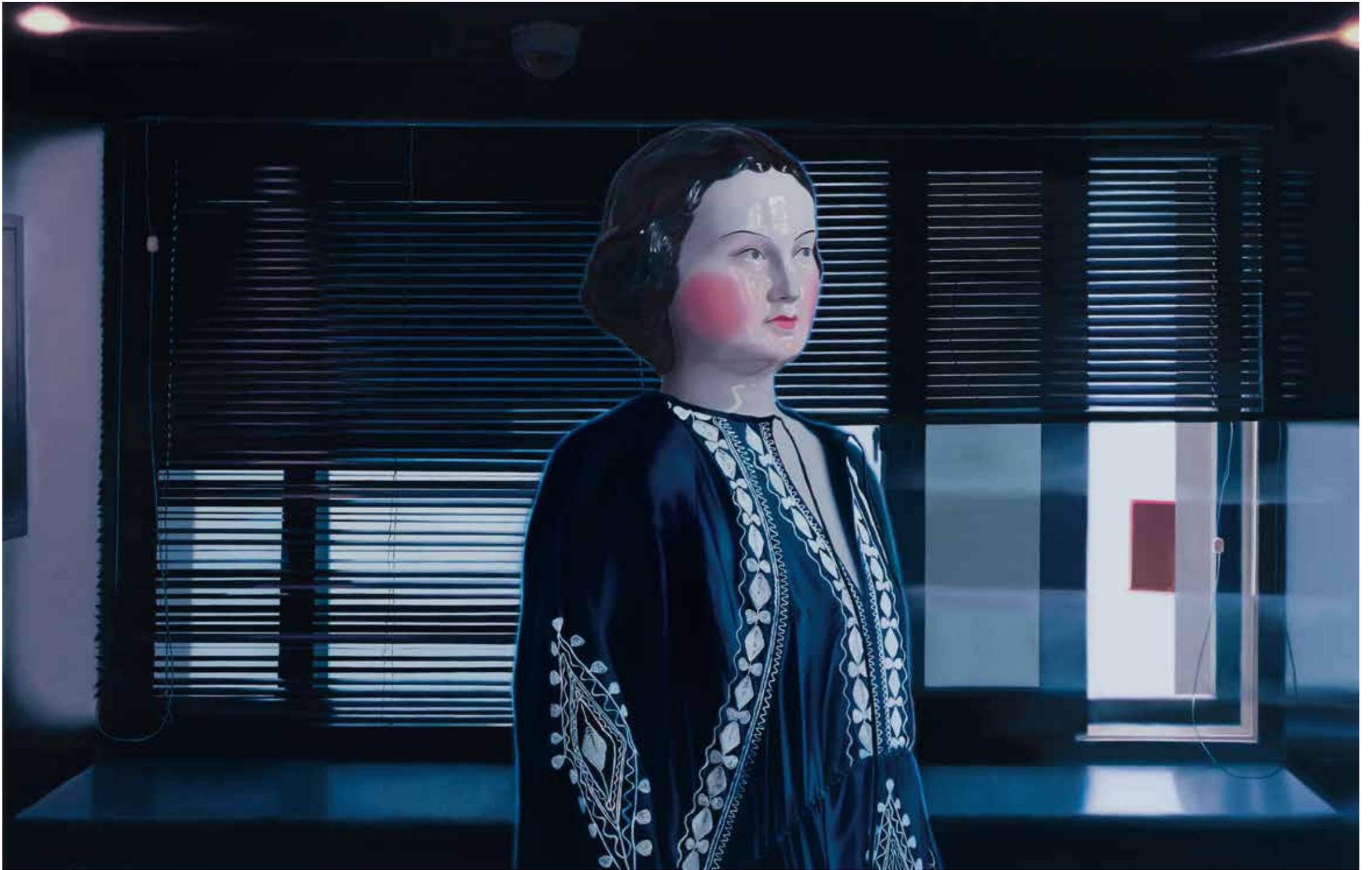
- 2022 뉴히어로 선정, 퍼블릭아트
- 2020 예술창작지원, 서울문화재단



Blue Moon  
oil on canvas, 193.9×130.3cm, 2023



Velvet Gesture 2  
oil on canvas, 90.9×72.7cm, 2022



[Stuck in the Blinds](#)

oil on canvas, 145.5×227.3cm, 2022

코스타스 파파코스타스(London, b.1976)는 일 획의 커다란 물결 무늬 붓질로 신체 제스처와 운동감이 느껴지는 모노톤의 추상회화를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작가는 캔버스를 바닥에 누인 뒤,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단숨에 붓을 휘두른다. 일필휘지로 완성된 코스타스의 페인팅은 동양의 서예 혹은 묵화를 연상하게 한다. 실제로 작가는 불교와 동양 철학을 탐닉해왔으며, 깊은 명상의 과정을 끝마친 후에 솟구치는 생의 에너지를 응축하여 평면 위에 이를 폭발시킨다. 코스타스의 페인팅에 힘을 부여하는 또 다른 요소는 색채다. 기운 생동하는 짙푸른 색의 선(혹은 면)은 작가의 성장배경에서 기인한다. 지중해로 둘러싸인 그리스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그에게 짙고 깊은 블루 컬러는 바다의 생명력이자 영원한 그리움인 것이다. 즉흥적 감흥으로 만들어진 쪽빛의 유기적 리듬들은 현재성(present-ness)을 일으켜 관람객의 즉각적인 몰입을 야기하는 동시에 화면 너머로 무한한 상상을 펼치도록 한다.

# b.1976 / London *Kostas Papakostas*

2020 HULL SCHOOL OF ART AND DESIGN, BA (HONS) FIRST CLASS HONOURS

## 개인전

- 2022 一劃 (in one stroke), gallery Unplugged, Seoul, Korea  
The Old Bank Vault, London, UK
- 2020 D Contemporary Gallery, London, UK
- 2019 Kura Gallery, Fukuoka, Japan (in collaboration with Stephanie Pochet)  
NOVA Art Space, So\_a, Bulgaria  
Les Rencontres, Arles, France  
See Me On 29, So\_a, Bulgaria
- 2018 6th International Video Poetry Festival, Athens, Greece

And other exhibitions

## 단체전

- 2023 Deep Layer, Artspace Hohwa, Seoul, Korea
- 2022 The Gestures, Artspace Hohwa, Seoul, Korea

## 수상/선정

- 2019 IMAGO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Bulgaria  
Studio Kura, Japan

## 글로벌 캠페인

Christian Dior, Apple, Sony PlayStation, MTV, BVLGARI, Virgin Records and the BBC



[Secrets of the Se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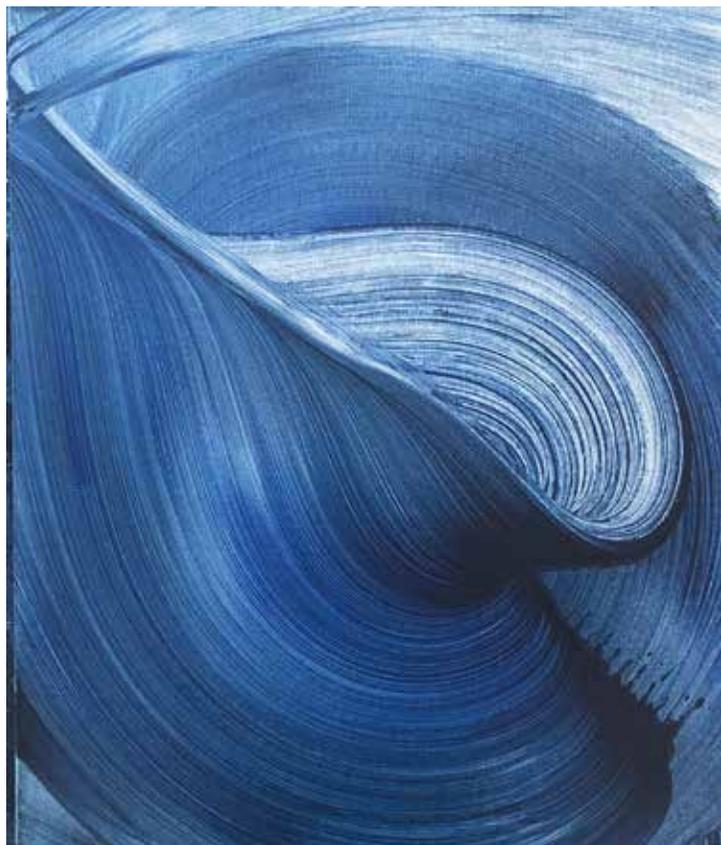
mixed media on linen canvas, 76×152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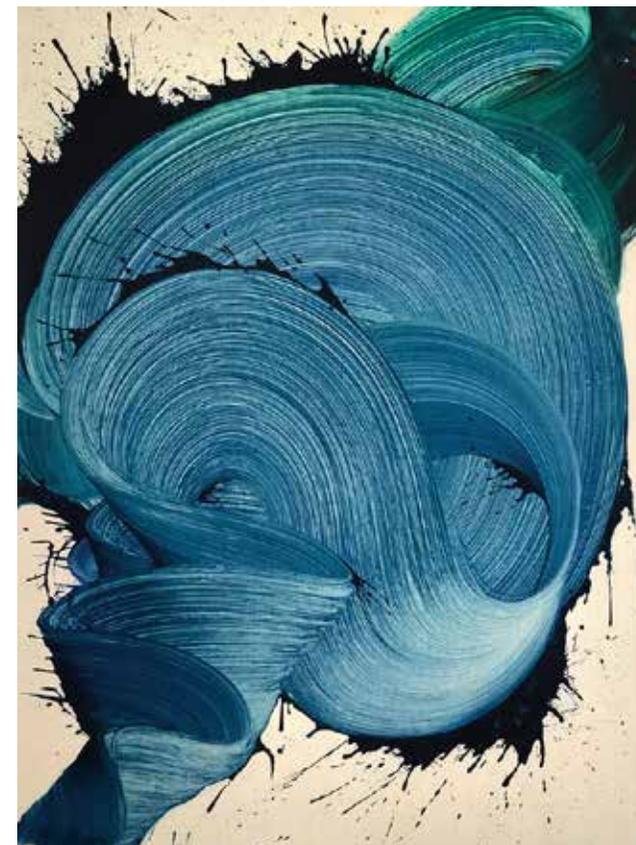
Secrets of the Sea #8  
acrylic on linen canvas, 60×50cm, 2022



Free fall flow  
acrylic on canvas, 90×120cm, 2023



Secrets of the Sea #12  
acrylic on linen canvas, 60×50cm, 2022



Voyage  
acrylic on linen, 90×120cm, 2022

# DEEP LAYER DEEP LAYER

2023. 4. 14 — 2023. 5. 14

주최 호반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호화

디자인 MGC

 HOBAN  
호반문화재단



SPACE  
ART  
HOHWA

# DEEP LAYER

SHIN GUNWOO

LEE DONGHYUK

CHOI JIWON

KOSTAS PAPA KOSTAS

2023. 4. 14 — 2023. 5. 14

ART SPACE HOHWA

+82 2 6337 7300 INFO@ASHH.KR ARTSPACEHOHWA.COM  
(04520) KOREA PRESS CENTER, 12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참여작가

신건우

이동혁

최지원

코스타스 파파코스타스

Participating Artists

Shin Gunwoo

Lee Donghyuk

Choi Jiwon

Kostas Papakostas

DEEP LAYER  
DEEP LAYER

DEEP LAYER  
DEEP LAYER

2023. 4. 14 — 2023. 5. 14

2023. 4. 14 — 2023. 5. 14